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노인인권과 노인의 정신정서건강을 고민하다

「제2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개최

- 9. 6.(화)~7.(수),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실시·유튜브 생중계
- ‘노인인권과 정신정서적 건강’ 주제 아래 노인인권 논의 촉진
- 유엔기관, INGOs, 학계, 아셈 회원국들의 협력 ‘국제 컨퍼런스’
- 센터의 WHO 애드보커시 브리프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국문번역본 발간 기념 ‘특별세션’
- 아셈의 국제NGC들이 다양한 인권기반의 커뮤니티 빌딩 실험과 노력을 공유하는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개최

-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원장 지은희)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노인인권과 정신정서적 건강에 대해 ‘제2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 본 포럼은 세션1)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현황 및 대응, 세션2)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인권 중심 커뮤니티 빌딩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화 방안, 세션3) 고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세션4) WHO 애드보커시 브리프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국문번역본 발간 기념 특별세션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는 현재 세계 대부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현상인 한편,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문제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 아시아와 유럽 60세 이상 인구의 각각 27%, 1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의 우울증이 세계적으로 건강문제와 신체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세계 노인의 13.3%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Abdoli N, et al., 2022).
 - 세계보건기구(WHO)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애드보커시 브리프(2021)에 따르면 유럽의 20-34%의 노인이 고독감을 느끼며,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2022)에 따르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는 18%의 노인이 극도의 고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편, 전세계적으로 노인(70세 이상)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독사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일본의 경우 매년 30,000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하며 도쿄에서만 5,513건의 고독사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함(2018년 기준).
- 이런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과 연관된 사회현상에 주목하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이하 AGAC)는 ‘노인인권과 정신정서적 건강(Human Rights and Mental-Emotional Health of Older Persons)’을 주제로 ‘제2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고립 및 고독과 연관된 노인의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시행된 다양한 대응책과 조치를 공유·평가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AGAC는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및 학술 연구자부터 시민사회단체(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하여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 첫째, 아시아, 유럽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과 관련된 이슈(외로움, 자살, 고독사 등)와 현황을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맥락에서 논의한다.
- 둘째,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관련 각국 정부와 국제 시민단체가 이행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공유·논의한다.
- 셋째,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외로움 등의 예방에 있어 세계적인 협력 증진 및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 1 :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현황 및 대응
세션 2: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인권중심 커뮤니티 빌딩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화 방안
세션 3 : 고독에 대한 정부의 대응
WHO 특별 세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세션 1.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현황 및 대응]

□ 세션 1에서는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분야 전문가 및 학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우울증, 고독사, 자살 등 여러 관련 이슈와 현황을 다루고 현재까지 취해진 다양한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 세션에서는 정신건강이 얼마나 노인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지를 밝힌다. 세션 1의 발표자는 인도 콜카타 소재 아폴로 종합병원의 노인정신 의학과 전문의 디반잔 바너지

박사(Dr. Debanjan Banerjee),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 체코 올로모우츠에 소재한 팔라츠키 대학교(Palacký University Olomouc) 체육문화학부 이선우 박사이다. 이 세션은 중앙대 심리학과 김기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세션 2.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인권중심 커뮤니티 빌딩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화 방안]

□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는 노인인권 관련 다양한 국제비정부기관(INGO)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며, INGOs간 협력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세션이다. 금년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인권중심 커뮤니티 빌딩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화 방안’이다. 즉, 이 세션에서는 아셈 회원국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커뮤니티 빌딩을 위해 해온 노력과 사례를 공유한다.

이 세션의 발표자/토론자는 총 8명이다. 한국헬프에이지 조현세 회장이 한국에서 이행된 커뮤니티 사업을 소개하고, 에이지 플랫폼 유럽(Age Platform Europe)의 일레니아 게노(Ms. Ilenia Gheno)와 퀘라움(Queraum)의 수잔 도브너(Ms. Susanne Dobner)가 지역사회 노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성해 서로를 지원하는 ‘꿈의 이웃(Dreamlike Neighbourhood)’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베트남 헬프에이지(HelpAge International Vietnam)의 쉐 비엩 응아 수석 매니저(Ms. Chu Viet Nga)가 ‘세대 간 자조 클럽(Intergenerational Self-Help Club, ISHC)’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태국 탐마삿 대학교 나타팻 사로볼 교수(Prof. Nattapat Sarobol)와 태국 부엥이토 지자체의 틴티난 낙푸 의사(Ms. Thintinan Nakphu)가 ‘강한 프로그램 - 포괄적

노인 돌봄을 위한 협력적 도시공동체 모델(Strong Program - A Collaborative Municipal-Community Model for Comprehensive Elderly Care)’에 관해 발표한다. 일본 노제자카 글로칼(Nogezaka Glocal)의 토모요 스즈키(Ms. Tomoyo Suzuki)도 태국의 파트너들과 연대하여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에 참여하였는데 일본에서 시행된 유사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본부를 둔 그룬트 비사(Grundtvig, Inc.)의 CEO 켄스케 스가와라(Mr. Kensuke Sugawara)는 ‘하나의 대가족으로서의 주거단지(Housing Complex as One Big Family)’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세션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세션 3. 고독에 대한 정부의 대응]

□ 고독은 노인들에게 절박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일부 나라에서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2017년 영국 정부의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는 영국의 만연한 외로움에 대한 1년간의 조사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9백만 명의 영국인이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중 14% 해당한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2021년 일본도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정부는 외로움을 국가 정책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세션 3은 영국, 일본, 독일과 한국 정부 인사를 초청하여 고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논의한다. 이 세션의 발표자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포츠부의 엠마 바로우 정책고문(Ms. Emma Barlow), 일본의 고독·고립 담당 마사노부 오구라(Mr. Masanobu Ogura) 장관,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마티아스 폰 슈바넨플뤼겔 총국장(Dr.

Matthias von Schwanenflügel), 한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유리 사무관이다. 발표자들은 고독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한 배경 및 시사점(영국과 일본의 경우), 해당국에서 봉착한 어려움, 지금까지 시행하였고 향후 채택할 조치 및 정책 등을 논의한다. 이 세션의 좌장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부연구위원 남궁은하 박사가 맡는다.

[WHO 특별 세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 WHO는 2021년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제목의 애드보커시 브리프(Advocacy Brief)를 발간하였다. 이 브리프는 향후 WHO가 수행할 동 분야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겪는 노인의 규모 및 영향과 해를 요약하고, 이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WHO 특별 세션에는 WHO 브리프의 주저자인 크리스토퍼 믹튼 박사(Dr. Christopher Mikton)가 해당 브리프의 주요 결과와 의의를 발표한다. 그리고 네 명의 토론자가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외로움 함께 끝내기(Ending Loneliness Together, ELT)’와 ‘외로움과 연대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Loneliness and Connection, GILC)’의 창설 멤버인 미셸 림 박사(Dr. Michelle Lim), “유럽 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보고서의 주저자인 유럽사회복지정책 연구센터의 에스터 졸료미 연구원(Ms. Eszter Zólyomi)과 베로니카 산두 연구원(Ms. Veronica Sandu),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은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WHO 애드보커시 브리프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결과도 공유한다. 이 세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인 장은하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붙임 1. 포럼 일정표>

- 보다 자세한 포럼내용은 홈페이지(www.asemgac.org)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일반인도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지은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이번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더 심각해진 노인의 정신정서적 건강 문제를 논의하고 노인인권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WHO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애드보커시 브리프 국문번역본 출간 기념 세션을 통해 한국의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외로움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국제이니셔티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원장 지은희)는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으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으며, 아셈 회원국의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를 다루며 국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노인인권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연구, 교류협력, 인식개선 및 교육, 정보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아셈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www.asemgac.org)

- ※ 붙임 1. 일정표 1부.
- 2. 포스터 1부. 끝.

	첫째 날 (9월 6일)	둘째 날 (9월 7일)
오전	등록 (09:30-10:00)	
	개막식 & 기초연설 (10:00-11:30)	
	점심 (11:30-13:00)	등록 (12:30-13:00)
오후	세션1: 노인 정신정서적 건강: 현황과 대응 (13:00-15:30)	세션3: 고독에 대한 정부 대응 (13:00-15:30)
	시민사회 토크콘서트: 인권 중심 커뮤니티 빌딩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화 방안 (16:00-18:30)	세션4 (WHO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16:00-18:00)
		폐막 (18:00-18:30)

2022 ASEM Forum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 Present and Future

Human Rights and Mental - Emotional Health of Older Persons

Tuesday 6 September - Wednesday 7 September 2022
Yeouido Glad Hotel | Hybrid/Live stream

DAY 1 9. 6 (화)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09:30-10:00		등록
10:30-11:30	환영사	지은희 회장(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축사	김상희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두환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기초학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우한유감연립대표부)	
11:30-13:00		오찬
13:00-15:30	[세션1] 노년 정신병리의 건강, 행동과 대응 좌장: 김기연 교수 (중앙대학교)	디반잔 바나지 박사(아폴로 다중문화 병원) 하정화 교수(서울대학교)
		이선우 연구원(알래스카 대학교 홀모우드)
15:30-16:00		쉬는 시간
16:00-18:30	[세션2] 사민주의 프로그램서론: 인권 중심 커뮤니티 발달 모형사례 공유 및 정책과 방안 좌장: 박정환 교수(전원대학) (강남대학교)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조원세 회장(한국 헬프케어지)
		일레니아 지노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에이지 플랫폼 유럽)
		수잔 토브니 연구원(제라움)
		츄 비엣 응아 고위매나지(메트로폴리탄 병원)
		스즈키 토오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노게지카 글로벌)
		티티안 님투 의사(방영의료 자치체)
		니타랏 사로물 조교수(라마산대학교)
스기자와 현스케 최고경영자(그론티비)		

DAY 2 9. 7 (수)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2:30-13:00		등록
13:00-15:30	[세션3] 고독에 대한 정부 대응 좌장: 남궁준우 부장(국립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엘마 바르우 정책고문(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
		오구라 하노부 고위 고위 담당 장관(일본 내각부)
		마티아스 폰 슈바덴하우젠 총장(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15:30-16:00		쉬는 시간
16:00-18:00	[WHO 특별세션]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좌장: 장은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크리스토퍼 익슨 기술자문관(세계보건기구)
		마틸 팀 공동대표(외로움과 연대에 대한 세계 이니셔티브)
		에스티 홀로미 연구원(유럽 사회복지정책 연구센터)
		베르니카 안두 연구원(유럽 사회복지정책 연구센터)
18:00-18:30	폐회사	최은수 부교수(고려대학교)
		이해경 이사장(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